

# 고등학교를 고르는 법

평판이 아니라 공시 자료로

- ◆ 이 책은 무료입니다.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
- ◆ 공개된 요강·공시 자료만 정리했습니다. 예측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들어 있나

- 1부 · 공시로 읽는다 학교알리미 다섯 칸이면 됩니다 · 4편
- 2부 · 갈래를 건준다 일반고·자사고·특목고를 나란히 · 5편
- 3부 · 정하고 나서 돈과 학적에서 걸리는 자리 · 2편

## 1 부

# 공시로 읽는다

학교알리미 다섯 칸이면 됩니다

학교알리미에서 이것만 보십시오

학생 수가 내신을 정합니다

진학 실적 읽는 법

교과 개설이 진로를 정합니다

## 2 부

# 갈래를 건준다

일반고·자사고·특목고를 나란히

같은 성적이면 어디로

특목고를 보내야 하나

과학고 3년 교육과정은 일반고와 무엇이 다른가

외고·국제고는 문과만 가는 곳인가

자사고 33곳, 전국형과 광역형

3 부

# 정하고 나서

돈과 학적에서 걸리는 자리

고등학교 3년에 드는 돈  
전학·이사로 학교를 바꿀 때

## 59 · 차례

## 무엇이 어디에 있나

1. 01 학교알리미에서 이것만 보십시오 8
2. 02 학생 수가 내신을 정합니다 13
3. 03 진학 실적 읽는 법 18
4. 04 교과 개설이 진로를 정합니다 23
5. 05 같은 성적이면 어디로 28
6. 06 특목고를 보내야 하나 33
7. 07 과학고 3년 교육과정은 일반고와 무엇이 다른가 38
8. 08 외교·국제고는 문과만 가는 곳인가 43
9. 09 자사고 33곳, 전국형과 광역형 48
10. 10 고등학교 3년에 드는 돈 53
11. 11 전학·이사로 학교를 바꿀 때 58

## 01 · 머리말

# 이 책을 왜 드리나

**저희는 학원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무료입니다.**

까닭을 먼저 말씀드리는 편이 낫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입시 정보는 넘칩니다. 그런데 **믿을 만한 것과 파는 말이 섞여** 있어서, 학부모님이 그것을 가려내는 데 시간을 다 쓰십니다. 그 상태로 상담에 오시면 **첫 시간을 오해를 푸는 데** 씁니다.

이 책을 읽고 오시면 그 시간이 사라집니다.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를 아시는 분과의 상담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나눠 드리는 것이 남는 장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도 그대로 적었습니다.**

책 곳곳에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로 시작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학원을 늘리지 마시라는 말, 이걸 상담 없이 집에서 하실 수 있다는 말, 그 강의는 안 들으셔도 된다는 말입니다.

다 진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은 자료라야 나머지 말도 믿으실 수 있습니다.

**숫자에는 출처를 달았고, 없으면 안 썼습니다.**

이 책의 숫자는 **공개된 모집요강·공시 자료·국가 통계**에서 왔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각 편 끝에 적어 두었습니다.

근거가 없는 자리는 **「저희 판단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상담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 다르게 보실 수 있고,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구분해 두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시CUBE**

2026년 8월

## 02 · 먼저 읽을 것

## 학교를 고르는 순서

고등학교를 고를 때 대부분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먼저 **학교 이름**을 정하고, 그 다음에 **그 학교가 어떤 곳인지** 알아봅니다. 반대로 하셔야 합니다 — 무엇을 볼지 정하고, 그 눈으로 학교를 보는 것입니다.

다행히 볼 것은 대부분 공개돼 있습니다. **학교알리미**에 학생 수·교육과정 편성·졸업생 진로가 다 있습니다. **평판으로** 알아볼 것이 아니라 찾아보면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 책은 그 자료를 읽는 법부터 시작합니다. **학교 이름을 늘어놓지 않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 읽는 법을 아시면 어느 학교든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 세 부의 차례

| 부  | 무엇을      | 이 부의 물음               |
|----|----------|-----------------------|
| 1부 | 공시 자료 읽기 | 무엇을 보고 무엇을 조심하나       |
| 2부 | 갈래 건주기   | 같은 성적이면 어디로 가는 것이 나은가 |
| 3부 | 돈과 학적    | 정하고 나서 걸리는 자리         |

1부의 둘째 편(학생 수와 내신)을 특히 보십시오. **학교 규모가 등급에 미치는 크기**는 셈으로 나오는 것이라 느낌으로 판단하면 대개 틀립니다.

3부의 첫 편(3년에 드는 돈)은 순서상 마지막에 두었지만 **실제로는 가장 먼저 보셔야 할 편**일 수 있습니다. **갈래에 따라 3년 비용이 스무 배 가까이 벌어집니다.**

## 이 책이 하지 않는 것

어느 학교가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 이름을** 실지 않습니다.

「좋은 학교」는 아이마다 다릅니다. 같은 학교가 어떤 아이에게는 맞고 어떤 아이에게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고르는 눈**을 드리는 데까지만 합니다. **고르시는 것은 부모님과 아이입니다.**

## 03 · 먼저 사실부터

## 이미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 학교 내신 따기 어렵대요.」

중3 겨울에 이 말이 돕니다. 그런데 누가 어떻게 알아낸 것인지를 물으면 대개 「누가 그러더라」로 끝납니다. 학교를 고르는 자료가 소문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 대부분 공시되어 있습니다.

학교알리미(schoolinfo.go.kr)는 법이 정한 공시 사이트입니다. 전국 모든 학교가 정해진 항목을 **해마다 올려야** 합니다. 회원가입도 필요 없고 누구나 봅니다.

문제는 **항목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수십 가지가 있어서 처음 여시면 어디를 봐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다섯 칸만** 짚어 드립니다.

| # | 무엇을              | 무엇을 알 수 있나          |
|---|------------------|---------------------|
| 1 | 학생 수 (학년별 · 학급별) | 등급 인원이 몇인지 — 다음 편에서 |
| 2 |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      | 시험이 쉬운가 어려운가        |
| 3 | 교육과정 편성          | 내가 들을 과목이 있는가       |
| 4 | 졸업생 진로 현황        | 진학 · 취업이 어떻게 갈리나    |
| 5 | 학업중단 학생 현황       | 학교를 떠나는 학생이 얼마나     |

이 다섯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학교를 고르는 데 크게 안 쓰입니다.

출처: 학교알리미(schoolinfo.go.kr) 공시 항목. 공시 항목과 이름은 해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이 자료는 특정 학교의 값을 실지 않습니다 — 읽는 법만 드립니다.

## 04 · 무엇을 보나

# 다섯 칸을 하나씩

### 1 · 학생 수

학년별·학급별로 나옵니다. **한 학년이 몇 명인지가 핵심입니다.** 이 숫자가 **내신 등급 인원을 정합니다** — 다음 편에서 산술로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것은 **학년별 변화**입니다. 1학년이 3학년보다 크게 적으면 **신입생이 줄고 있다**는 뜻이고, 그러면 앞으로의 등급 인원도 달라집니다.

### 2 ·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

가장 안 알려졌는데 가장 쓸모 있는 칸입니다. 과목마다 **A·B·C·D·E 비율과 평균**이 나옵니다.

보실 것은 둘입니다. **평균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가** — 평균이 아주 높으면 시험이 쉬웠다는 뜻이고, **쉬운 시험은 한 문제에 등급이 갈립니다.** 그리고 **A 비율이 지나치게 크지 않은가** — 같은 이야기입니다.

### 3 · 교육과정 편성

그 학교가 **어떤 과목을 여는지가** 나옵니다. 고교학점제에서는 이게 결정적입니다 — **듣고 싶은 과목이 그 학교에 없으면 못 들읍니다.**

### 4 · 졸업생 진로 현황

진학·취업·기타로 나뉩니다. **어느 대학에 갔는지는 안 나옵니다** — 그건 공시 항목이 아닙니다. 학교가 따로 발표하는 「진학 실적」과는 다른 자료이고, **그 차이가 중요합니다.** 뒤에서 다루겠습니다.

### 5 · 학업중단 학생 현황

학교를 떠난 학생 수입니다. **학교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공시 숫자**입니다. 다만 자퇴 사유가 다양하니 **이 숫자 하나로 단정하지는 마십시오.**

출처: 학교알리미 공시 항목 설명. 항목별 해석은 저희 판단이며, 공시 값 자체가 아닙니다.

## 05 · 어떻게 여나

## 따라 하시면 됩니다

처음이라면 순서대로 해 보십시오. **십 분이면 됩니다.**

| 차례 | 무엇을                      |
|----|--------------------------|
| 1  | schoolinfo.go.kr 에 들어갑니다 |
| 2  | 학교 이름으로 검색합니다            |
| 3  | 공시정보 쪽으로 들어갑니다           |
| 4  | 앞의 다섯 항목을 하나씩 엽니다        |
| 5  | 학교 두셋을 같은 표에 옮겨 적습니다     |

**5분이 요령입니다.** 한 학교만 보면 「그런가 보다」로 끝납니다. 두셋을 나란히 놓아야 차이가 보입니다. 종이 한 장에 학교 이름을 가로로 적고, 다섯 항목을 세로로 적으시면 됩니다.

## 연도를 확인하십시오

공시는 **지난 해** 것이 올라옵니다. 화면의 조회 연도와 **실제 자료 연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항목 제목에 적힌 해를 함께 보십시오.

## 없는 자료도 있습니다

**신설 학교**는 자료가 없거나 1학년치만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 항목이 해마다 바뀝니다** — 예전에 있던 항목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없다고 학교가 숨긴 것이 아닙니다.

출처: 학교알리미 이용 안내. 화면 구성은 바뀔 수 있으니 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 06 · 그래서 무엇을

## 점검표

인쇄해서 학교를 볼 때 옆에 두십시오.

## 학교알리미에서 확인할 것

- ☐ 한 학년 학생 수 가 몇 명인가
- ☐ 1학년이 3학년보다 크게 줄지 않았는가
- ☐ 주요 과목의 평균 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가
- ☐ A 비율 이 지나치게 크지 않은가
- ☐ 내가 들을 과목이 개설 되어 있는가
- ☐ 졸업생 진학 비율 이 얼마인가
- ☐ 학업중단 학생이 몇 명인가
- ☐ 자료의 연도 를 확인했는가

이 여덟을 학교 두셋에 해 보시면 비교가 됩니다. 한 학교만 보시면 숫자가 큰지 작은지 알 수 없습니다.

## 공시로는 알 수 없는 것

- ☐ 어느 대학에 몇 명 갔는지 — 공시 항목이 아닙니다
- ☐ 면학 분위기 — 숫자로 안 나옵니다
- ☐ 선생님들의 성향
- ☐ 내신 경쟁의 세기 — 학생 수로 짐작만 됩니다

이건 학교 설명회나 재학생·졸업생에게 물으셔야 합니다. 다만 그건 사람마다 다르게 말하는 것이니 공시로 알 수 있는 것부터 확인하고 나서 물으십시오.

##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확인에 상담이 필요 없습니다. 공개된 사이트이고 십 분이면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교별 숫자를 실어 드리지 않는 데는 까닭이 있습니다 — 저희는 전국을 상대로 자료를 만들고, 특정 지역 학교 목록을 실는 순간 그 지역 이야기가 됩니다. 방법을 아시면 어느 지역에서든 쓰실 수 있습니다.

## 07 · 자주 묻는 것

## 학교 고르기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 Q. 공시 숫자가 학교 실력을 보여 주나요?

일부만 보여 줍니다. 그리고 보여 주는 것과 아닌 것을 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교적 믿을 만한 것** — 학생 수, 개설 과목, 학업중단 수. 이걸 셈이 단순하고 학교가 조작할 여지가 적습니다.

**조심해서 볼 것** — 교과별 성취도입니다. 평균이 높으면 「학생이 잘한다」 일 수도 있고 「시험이 쉽다」 일 수도 있습니다. 둘을 공시만으로는 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시는 「이 학교가 어떤 곳인가」를 좁히는 데 쓰고, 「좋은 학교인가」를 판정하는 데는 쓰지 마십시오.

## Q. 학교 서열 자료를 보면 되지 않나요?

그런 자료의 근거를 물어보십시오. 학교알리미에는 **대학 진학 실적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느 학교가 어디 몇 명」이라는 표는 공시가 아닌 다른 데서 온 것입니다.

학교가 자체 발표한 것을 모았거나, 추정한 것이거나, 오래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에는 재수생과 중복 합격이 섞여 있습니다** — 다음다음 편에서 그 이야기를 자세히 하겠습니다.

**서열표를 아예 보지 마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무엇을 센 숫자인지 모른 채 믿지는 마십시오. 공시로 확인할 수 있는 것부터 보시는 편이 훨씬 단단합니다.

## 한 줄로 남기면

학교 고르기는 **소문으로 할 일이 아닙니다**. 다섯 칸이면 되고, 십 분이면 됩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학교알리미 공시 항목을 정리한 것입니다. **특정 학교의 값은 실지 않습니다** — 읽는 법만 드립니다. 공시 항목과 화면 구성은 바뀔 수 있으니 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자료는 특정 학교를 권하거나 진학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 08 · 숫자부터

# 등급은 비율로 나옵니다

「전교생이 많은 학교가 내신 따기 유리하대요.」

널리 도는 말이고, 대체로 맞습니다. 다만 왜 그런지를 알면 어디서 그 말이 틀리는지도 보입니다. 이건 소문이 아니라 산술입니다.

2025년 고1부터 내신이 **5등급제**입니다. 등급은 **비율**로 나옵니다.

| 등급  | 누적 비율   | 구간       |
|-----|---------|----------|
| 1등급 | 상위 10%  | 상위 0~10% |
| 2등급 | 누적 34%  | 11~34%   |
| 3등급 | 누적 66%  | 35~66%   |
| 4등급 | 누적 90%  | 67~90%   |
| 5등급 | 누적 100% | 91~100%  |

비율이니까 학교가 크든 작든 「몇 %」는 같습니다. 그런데 「몇 명」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걸리는 것은 사람 수입니다.

**주의** — 예전 9등급제는 1등급이 4%였습니다. 지금은 10%입니다. 둘을 섞으면 계산이 통째로 틀립니다. 인터넷에 9등급제 기준 표가 아직 많이 돌아다닙니다.

출처: 2028 대입개편 확정안 및 공개된 내신 등급 산출 기준. 2025년 고1부터 적용됩니다. 실제 인원은 반올림·동점 처리로 달라집니다.

## 09 · 무엇이 다른가

## 같은 비율, 다른 사람 수

한 과목을 듣는 학생 수에 따라 등급 인원이 이렇게 됩니다.

| 수강자  | 1등급 | 2등급까지 | 3등급까지 | 4등급까지 |
|------|-----|-------|-------|-------|
| 10명  | 1   | 3     | 7     | 9     |
| 15명  | 2   | 5     | 10    | 14    |
| 20명  | 2   | 7     | 13    | 18    |
| 30명  | 3   | 10    | 20    | 27    |
| 50명  | 5   | 17    | 33    | 45    |
| 80명  | 8   | 27    | 53    | 72    |
| 120명 | 12  | 41    | 79    | 108   |
| 200명 | 20  | 68    | 132   | 180   |
| 300명 | 30  | 102   | 198   | 270   |

이 표에서 큰 학교가 유리하다는 말의 뿌리가 보입니다. 300명이 듣는 과목에서는 1등급이 30명이고, 30명이 듣는 과목에서는 3명입니다.

### 그런데 「유리하다」는 말은 조심해야 합니다

비율은 같습니다. 300명 중 30명이나 30명 중 3명이나 둘 다 상위 10%입니다. 「내가 상위 10%에 드는가」는 학교 크기와 무관합니다.

그러면 왜 큰 학교가 유리하다고 할까요.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 — 사람이 많으면 실력이 고르게 퍼집니다. 작은 학교는 우연히 잘하는 학생이 몰릴 수 있습니다. 30명 중에 아주 잘하는 학생이 다섯이면 여섯째부터는 2등급입니다. 300명이면 그런 쓸림이 평균으로 늘립니다.

둘 — 한 명이 미치는 영향이 작습니다. 작은 학교에서는 전학생 한 명이 등급을 바꿉니다.

등급 인원은 5등급제 비율로 저희가 계산한 것입니다. 해석은 저희 판단이며, 실제 등급은 동점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 10 · 진짜 위험한 자리

# 학교 크기보다 과목 크기

여기가 이 자료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등급은 학교 전체가 아니라 「그 과목을 들은 사람」 안에서 나옵니다.

전교생이 300명이어도 그 과목을 열 명이 들으면 열 명 안에서 갑니다.

| 수강자 | 1등급 인원 | 무슨 뜻인가   |
|-----|--------|----------|
| 8명  | 1명     | 한 명입니다   |
| 10명 | 1명     | 한 명입니다   |
| 12명 | 1명     | 한 명입니다   |
| 15명 | 2명     | 둘로 늘어납니다 |
| 25명 | 2명     | —        |

수강자가 열 명 안팎이면 1등급이 한 명뿐입니다. 1등을 해야만 1등급이라는 뜻입니다.

### 고교학점제가 이 일을 늘립니다

과목을 골라 듣게 되면 수강자가 적은 과목이 늘어납니다. 특히 드물게 고르는 과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교생이 많은 학교」보다 「그 과목을 몇 명이 듣는가」가 실제로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걸 학교를 고를 때가 아니라 과목을 고를 때 걸립니다.

### 다만 제도가 이걸 알고 있습니다

진로선택·융합선택 과목은 절대평가로 가는 자리가 있고, 일부 과목은 석차등급을 아예 안 매깁니다. 그래서 어느 과목이 상대평가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평가 과목에서 수강자가 적은 것이 위험하고, 절대평가 과목은 그 걱정이 없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안내에서 그 구분을 확인하십시오.

등급 인원은 저희 계산입니다. 평가 방식(상대·절대)은 과목 구분에 따르며 제도가 바뀌는 중이니 그해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 11 · 그래서 무엇을

## 보는 차례와 점검표

| 차례 | 무엇을                 | 어디서               |
|----|---------------------|-------------------|
| 1  | 한 학년 학생 수를 봅니다      | 학교알리미             |
| 2  | 주요 과목은 대개 전원이 들습시다  | 거기서는 학년 크기가 곧 수강자 |
| 3  | 선택 과목은 몇 명이 듣는지 봅니다 | 학교 교육과정 안내        |
| 4  | 그 과목이 상대평가인지 확인합니다  | 교육과정 안내           |

3번과 4번이 실제로 등급을 정합니다. 학교를 고를 때는 1번만 보시면 되고, 과목을 고를 때 3·4번이 걸립니다.

## 학교와 과목을 볼 때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한 학년이 몇 명 인가
- ☐ 1학년이 3학년보다 크게 줄지 않았는가
- ☐ 내가 들을 선택 과목 이 개설되는가
- ☐ 그 과목을 몇 명이 듣는가
- ☐ 그 과목이 상대평가인가 절대평가인가
- ☐ 1등급이 몇 명 인지 계산해 보았는가
- ☐ 5등급제 비율( 1등급 10% )로 계산했는가
- ☐ 9등급제 표(1등급 4%)를 쓰고 있지 않은가

마지막 항목을 꼭 보십시오. 인터넷에 9등급제 기준 표가 아직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걸로 계산하면 등급 인원이 절반 이하로 나옵니다.

###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신 따기 쉬운 학교」를 찾아 옮기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비율은 어디서나 같고, 옮긴 학교에서도 상위 10%에 들어야 1등급입니다. 그리고 옮기면 친구·선생님·분위기가 다 바뀝니다. 그 값이 등급 하나보다 클 수 있습니다. 학교를 고르는 것보다 과목을 고르는 것이 등급에 더 크게 작용합니다.

## 12 · 자주 묻는 것

# 학생 수와 등급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 Q. 작은 학교는 무조건 불리한가요?

아닙니다. 얻는 것도 있습니다.

**잃는 것** — 앞서 본 대로 등급 인원이 적고, 한 명의 영향이 큼니다. 선택 과목이 적게 열려 **고를 폭도 좁습니다.**

**얻는 것** — 선생님이 학생을 압니다. 그러면 **세특에 적힐 것이 생깁니다.** 앞서 다룬 대로 세특은 선생님이 관찰한 것을 적는 기록인데, 학생이 많으면 관찰이 어렵습니다.

그러니 **교과 전형을 볼 것이냐 학종을 볼 것이냐**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등급이 중요하면 큰 학교, 서류가 중요하면 작은 학교가 나올 수 있습니다.

### Q. 전학을 가면 등급이 좋아지나요?

좋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옮긴 학교에서도 상위 10%에 들어야 1등급입니다. 그 학교 학생들이 어떤지는 가 봐야 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잃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받은 등급은 그대로 남고, 새 학교의 **진도와 시험 방식에 적응하는 시간**이 듭니다. 선택 과목이 다르면 **이수 과목이 어긋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등급을 이유로 한 전학을 권하지 않습니다.** 전학이 맞는 경우는 **이사·통학·건강처럼 다른 이유가 있을 때**이고, 그때는 등급이 아니라 **이수 과목이 이어지는지**를 확인하십시오.

### 한 줄로 남기면

등급은 학교 크기가 아니라 그 과목을 들은 사람 수에서 나옵니다. 수강자가 열 명이면 1등급은 한 명입니다.

이 자료의 등급 인원은 5등급제 비율로 저희가 계산한 것입니다. 실제 등급은 동점 처리와 학교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가 방식은 과목 구분과 제도 개편에 따라 바뀌니 그해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이 자료는 특정 학교를 권하거나 성적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 13 · 먼저 사실부터

# 이건 공시가 아닙니다

「그 학교는 작년에 서울대를 다섯 명 보냈대요.」

학교 설명회에서, 현수막에서, 카페 글에서 이런 숫자를 보십니다. 먼저 알아 두실 것이 있습니다 — **대학별 진학 실적은 공시 항목이 아닙니다.** 학교알리미에 어느 대학에 몇 명 갔는지는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 숫자는 어디서 왔을까요. **학교가 스스로 발표한 것입니다.** 발표할 의무가 없고, **세는 방식도 학교가 정합니다.**

이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무엇을 센 숫자인지 모른 채 견주면 안 됩니다.** 학교마다 다르게 셀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무엇          | 공시되나                    |
|-------------|-------------------------|
| 졸업생 진학 비율   | 공시됩니다 — 진학·취업·기타        |
| 대학별 합격자 수   | 공시 항목이 아닙니다             |
| 재학생 실적      | 공시 안 됩니다                |
| 학교 발표 진학 실적 | 학교 재량 —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그래서 이 편은 **그 숫자를 어떻게 읽는가**를 다룹니다.

출처: 학교알리미 공시 항목. 학교 발표 자료의 성격에 대한 설명은 저희 판단입니다.

## 14 · 무엇이 섞여 있나

## 세 가지가 숫자를 부풀립니다

## Q. 하나 — 중복 합격

한 학생이 여러 대학에 붙습니다. 수시 여섯 장을 쓰고 둘셋에 붙는 일이 흔합니다.

그 학생을 대학마다 한 명씩 세면 한 사람이 세 명이 됩니다. 「인서울 60명」이 실제로는 **서른 명** 남짓일 수 있습니다.

가르는 법 — 「합격자」인지 「진학자」인지를 보십시오. 진학자는 실제로 등록한 사람이라 **한 명이 한 번만** 세어집니다. 「합격」이라 적혀 있으면 중복이 들어 있다고 보시면 대체로 맞습니다.

## Q. 둘 — 재수생(N수)

그 학교를 졸업한 **재수·삼수생의 합격**을 함께 세는 경우가 있습니다.

졸업생도 그 학교 출신이니 넣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다만 「**올해 3학년이 이만큼 갔다**」로 읽으면 어긋납니다.

가르는 법 — 「**현역**」이라는 말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없으면 물어보십시오. 설명회에서 「**이 숫자에 재수생이 포함되니까?**」 한 마디면 됩니다.

## Q. 셋 — 세는 범위

「인서울」「주요대」「상위권」 같은 말은 **정해진 뜻이 없습니다**. 학교마다 어디까지 넣을지 다르게 정합니다.

그래서 두 학교의 「**인서울 몇 명**」을 나란히 놓으면 **안 됩니다**. 같은 자를 쓴 숫자가 아닙니다.

가르는 법 — 어느 대학을 넣었는지 **목록**을 물으십시오. 목록을 주면 견줄 수 있고, 안 주면 견줄 수 없는 숫자입니다.

셋을 합치면 **같은 학교의 같은 해 실적**이 두 배 넘게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장은 저희 상담 경험에서 나온 판단입니다. 학교마다 발표 방식이 다르며, 모든 학교가 그렇다는 뜻이 아닙니다.

## 15 · 왜 그렇게 되나

## 숫자를 부풀리려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해를 하나 풀어 두겠습니다. 학교가 속이려고 그러는 것만은 아닙니다.

| 왜           | 사정                          |
|-------------|-----------------------------|
| 학교도 모릅니다    | 졸업생이 어디에 등록했는지 다 알기 어렵습니다   |
| 합격이 먼저 나옵니다 | 등록은 나중이라 발표 시점에는 합격 수만 있습니다 |
| 형식이 없습니다    | 어떻게 세라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 알리고 싶습니다    | 학생을 모아야 하니 좋게 보이려는 마음은 있습니다 |

그러니 화내실 일이 아니라 읽는 법을 아실 일입니다.

## 충원까지 생각하면 더 벌어집니다

앞서 본 대로 수시 충원율 중앙값이 75%이고, 교과는 122%입니다. 정원만큼 다시 도는 것이 보통이라는 뜻입니다.

충원까지 합쳐 세면 합격자 수가 크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간 사람은 한 명입니다. 「합격」으로 세는 숫자가 부푸는 구조적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 그래서 무엇을 믿나

공시된 진학 비율은 믿을 만합니다. 형식이 정해져 있고 한 사람이 한 번 세어집니다. 다만 어느 대학인지는 안 나옵니다.

학교가 발표한 대학별 숫자는 참고로만 보십시오. 그리고 같은 학교의 여러 해를 보시면 그나마 견줄 만합니다 — 한 학교 안에서는 세는 방식이 대체로 같기 때문입니다.

출처: 학교알리미 공시 및 어디가 전형결과 집계(충원율). 학교 발표 방식에 대한 설명은 저희 판단입니다.

## 16 · 그래서 무엇을

## 물어볼 것과 점검표

설명회에 가시면 이 넷을 물으십시오. 답을 들으면 숫자가 읽힙니다.

| # | 물을 말                 | 왜              |
|---|----------------------|----------------|
| 1 | 「이 숫자는 합격입니까 진학입니까?」 | 중복이 들어 있는지 갑니다 |
| 2 | 「재수생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현역 실적인지 갑니다    |
| 3 | 「어느 대학까지 넣으셨습니까?」    | 범위를 알아야 갑니다    |
| 4 | 「졸업생이 몇 명이었습니까?」     | 비율로 봐야 뜻이 갑니다  |

4번이 가장 쓸모 갑니다. 「인서울 60명」은 졸업생이 200명이면 30%이고 500명이면 12%갑니다. 사람 수가 아니라 비율로 보셔야 학교끼리 갑질 수 갑니다.

## 진학 실적을 볼 때 갑인하실 여덟 가지

- ☐ 이 숫자가 공시인지 학교 발표인지 아는가
- ☐ 합격 인지 진학 인지 갑인했는가
- ☐ 재수생 이 포함되어 갑는가
- ☐ 「인서울」「주요대」의 범위 를 물어보았는가
- ☐ 졸업생 수 를 알고 비율로 보았는가
- ☐ 같은 학교의 여러 해 를 보았는가
- ☐ 다른 학교와 같은 자로 갑주고 갑는가
- ☐ 공시된 진학 비율 도 함께 보았는가

일곱째가 가장 자주 어긋갑니다. A학교의 「합격 기준 숫자」와 B학교의 「진학 기준 숫자」를 나란히 놓으면 갑준 것이 아갑니다.

##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원 실적 숫자도 같은 자로 보십시오. 저희를 포함해 학원이 내는 실적에도 중복 합격과 재수생이 섞일 수 갑니다. 물으실 말은 학교에 물을 때와 갑습니다 — 「합격입니까 진학입니까」, 「몇 명 중 몇 명입니까」. 이 두 마디에 갑하지 못하는 숫자는 갑질 수 없는 숫자갑니다.

## 17 · 자주 묻는 것

## 진학 실적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그럼 진학 실적은 아예 보지 말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보되 무엇을 센 숫자인지 알고 보시면 됩니다.

쓸모 있게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같은 학교의 세 해를 나란히** 놓는 것입니다. 한 학교 안에서는 세는 방식이 대체로 같아서, **늘었는지 줄었는지는** 읽힙니다.

그리고 **공시된 진학 비율**을 함께 보십시오. 「졸업생 가운데 몇 %가 진학했는가」는 형식이 정해져 있어 견줄 수 있습니다.

**학교끼리 대학별 숫자를** 견주는 것만 피하시면 됩니다. 그건 자가 다른 숫자입니다.

**Q. 1등이 어느 대학 갔는지를 보라던데요?**

커뮤니티에서 도는 방법입니다. **뜻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 그 학교 최상위권이 어디까지 가는지 보이니까요.

다만 **한 사람의 결과**입니다. 그 학생이 유난히 잘했을 수도, 그해가 특별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 명으로 학교를 판단하는 것은 표본이 너무 작습니다.**

그리고 **내 아이가 1등을 할 것이라는 가정**이 깔려 있습니다. 1등이 어디 갔는지보다 **중간이 어디로 가는지**가 대부분의 학생에게는 더 쓸모 있는 정보입니다.

그건 **공시된 진학 비율**에서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진학률이 높으면 중간층도 어딘가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줄로 남기면**

진학 실적은 **공시가 아니라 학교가 발표한 숫자**입니다. 를 물으십시오.

## 「합격입니까 진학입니까」와 「몇 명 중 몇 명입니까」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학교알리미 공시 항목과 공개된 전형결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특정 학교의 숫자는 실지 않습니다.** 학교 발표 방식에 대한 설명은 저희 판단이며, 모든 학교가 그렇다는 뜻이 아닙니다.

## 18 · 먼저 사실부터

# 학교가 안 열면 못 듣습니다

「고교학점제라 과목을 골라 듣는다면서요.」

맞습니다. 다만 고를 수 있는 것은 그 학교가 연 과목뿐입니다. 전국에 선택 과목이 백 개 넘게 있어도, 내가 다니는 학교가 안 열면 못 듣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고르는 것이 과목을 고르는 것이 되었습니다.

왜 이게 대입까지 걸리는지부터 보시겠습니다.

| 어디서 걸리나 | 어떻게                                       |
|---------|-------------------------------------------|
| 수능 지정과목 | 최저 문장이 「수학(미적분/기하)」로 못 박은 자리가 272줄·15개 대학 |
| 탐구 지정   | 과탐만 지목한 자리가 525줄                          |
| 학종 서류   | 어떤 과목을 골랐는지가 읽힙니다                         |
| 졸업 요건   | 필수 이수를 채워야 졸업합니다                          |

앞의 둘은 수능 응시 과목이라 학교 개설과 무관하게 고를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안 배운 과목을 수능으로 보는 것은 혼자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셋째가 학교 개설과 곧장 걸립니다. 학종은 생활기록부에 적힌 이수 과목을 봅니다. 학교가 안 연 과목은 생활기록부에 안 남습니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집계 및 학교알리미 공시 항목. 학종 평가에 대한 설명은 저희 판단입니다.

## 19 · 무엇을 보나

## 개설 과목표 읽는 법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표**를 보시면 됩니다. 학교알리미에 공시되고, 학교 홈페이지에도 대개 있습니다.

| # | 무엇을             | 왜                  |
|---|-----------------|--------------------|
| 1 | 과학 과목이 어디까지 열리나 | 이공계·의약학을 볼 때 걸립니다  |
| 2 | 수학 과목이 어디까지     | 미적분·기하가 열리는가       |
| 3 | 제2외국어가 무엇이 있나   | 없는 학교가 많습니다        |
| 4 | 진로선택·융합선택의 폭    | 세특에 쓸 거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
| 5 | 몇 명 이상이어야 여나    | 신청자가 적으면 폐강됩니다     |

5번이 잘 안 알려졌습니다. 편성표에 있어도 신청자가 적으면 안 열립니다. 최소 인원 기준이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 「열린다」와 「매년 열린다」는 다릅니다

편성표는 **올해 계획**입니다. 2학년 때 들으려던 과목이 **그해에 안 열릴** 수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실제로 열렸는지를** 물으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길도 있습니다

학교에 없는 과목을 **다른 학교나 온라인으로 듣는 제도**가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이 운영합니다.

다만 **이동 시간과 저녁·주말 수업**이 붙는 경우가 있어 부담이 큼니다. **있다는 것만 알아 두시고, 기본은 학교 개설로 계산**하십시오.

출처: 학교알리미 교육과정 편성 공시 및 시도교육청 공동교육과정 안내. 운영 방식은 지역·학교마다 다릅니다.

20 · 무엇이 걸리나

진로별로 봐야 할 과목

진로에 따라 없으면 곤란한 과목이 다릅니다.

| 이쪽을 본다면     | 있어야 할 것           | 없으면           |
|-------------|-------------------|---------------|
| 의약학·<br>이공계 | 과학 심화 과목 · 미적분·기하 | 지정과목에서 걸립니다   |
| 인문·사회       | 사회 선택 과목의 폭       | 세특 거리가 좁아집니다  |
| 경영·경제       | 경제 · 확률과통계        | —             |
| 어문·국제       | 제2외국어             | 안 여는 학교가 많습니다 |
| 예체능         | 실기 관련 과목          | 학교 밖에서 해야 합니다 |

첫째 줄이 가장 크게 걸립니다. 앞서 본 대로 최저 문장이 수학을 미적분·기하로 못 박은 자리가 272줄입니다. 학교에서 미적분을 안 열면 혼자 해야 합니다.

다만 순서를 헛갈리지 마십시오

수능 응시 과목은 학교 개설과 무관합니다. 학교에서 안 배워도 수능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학교 개설이 걸리는 것은 내신과 생활기록부입니다. 그 과목을 이수한 기록이 남는가, 그리고 세특에 적힐 거리가 생기는가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수능만 보면 학교 개설이 덜 중요하고, 학종을 보면 크게 중요합니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집계. 진로별 과목 구분은 저희 판단이며 대학·학과마다 다릅니다.

## 21 · 그래서 무엇을

## 확인하는 차례와 점검표

| 차례 | 무엇을                          | 언제      |
|----|------------------------------|---------|
| 1  | 가려는 학교의 <b>편성표</b> 를 봅니다     | 학교 고를 때 |
| 2  | 내 진로에 필요한 과목이 <b>있는지</b> 봅니다 | 같이      |
| 3  | <b>실제로 열렸는지</b> 물어봅니다        | 설명회에서   |
| 4  | 없으면 <b>공동교육과정</b> 을 알아봅니다    | 입학 뒤    |

3번을 꼭 하십시오. 편성표에 있는 것과 실제로 열린 것은 다릅니다. 「작년에 이 과목 열렸나요?」 한 마디면 됩니다.

## 교육과정 편성을 볼 때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학교 **교육과정 편성표** 를 직접 보았는가
- ☐ 과학 심화 과목 이 어디까지 열리는가
- ☐ 미적분·기하 가 열리는가
- ☐ 제2외국어 가 무엇이 있는가
- ☐ 진로선택·융합선택 의 폭이 넓은가
- ☐ 과목이 열리는 **최소 인원** 기준이 있는가
- ☐ 그 과목이 **작년에 실제로 열렸는지** 물어보았는가
- ☐ **공동교육과정** 으로 들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는가

여섯째와 일곱째가 실제로 갑니다. 편성표에 적혀 있어도 신청자가 적으면 안 열립니다. 그러면 계획했던 과목 대신 다른 것을 들어야 합니다.

###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없는 과목을 학원에서 배우는 것을 먼저 생각하지 마십시오.** 학원에서 배워도 **생활기록부에는 안 남습니다.** 학종을 보신다면 그건 큰 차이입니다. **먼저 학교에 개설을 요청해 보시고**(신청자가 모이면 여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다음이 공동교육과정**이고, 학원은 그다음입니다.

## 22 · 자주 묻는 것

# 교과 개설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 Q. 작은 학교는 과목이 적나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학생이 적으면 **최소 인원을 못 채워 안 열리는 과목**이 생깁니다.

앞 편에서 본 것과 **맞바꿈**이 생기는 자리입니다. 작은 학교는 **선생님이 학생을 안다**는 이점이 있지만 **고를 과목이 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로가 뚜렷하고 그 과목이 필요하다면** 개설 폭이 넓은 학교가 낫고, **진로가 아직이고 세특이 중요하다면** 작은 학교의 이점이 큼니다.

그리고 **작은 학교일수록 공동교육과정을 적극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함께 물어보십시오.

### Q. 인기 없는 과목을 들으면 등급이 불리한가요?

상대평가 과목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앞 편에서 본 대로 **수강자가 열 명 안팎이면 1등급이 한 명**입니다.

다만 **모든 선택 과목이 상대평가는 아닙니다.** 진로선택·융합선택 가운데 **절대평가로 가는 자리**가 있고, 일부는 **석차등급을 아예 안 매깁니다.**

그러니 물음은 「인기 있나 없나」가 아니라 「**이 과목이 상대평가인가**」입니다. 절대평가 과목이면 **수강자가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안내에 **과목별 평가 방식**이 적혀 있습니다. 없으면 담당 선생님께 여쭙보십시오 — **이건 학교가 아는 정보**입니다.

## 한 줄로 남기면

고교학점제에서 **학교를 고르는 것은 과목을 고르는 것입니다**. 편성표를 보고, **작년에 실제로 열렸는지** 물어보시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공시 항목·요강 집계와 제도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설 과목과 평가 방식은 **학교·지역·연도마다** 다르고 **제도가 바뀌는** 중입니다. 반드시 해당 학교와 교육청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 23 · 먼저 사실부터

# 고를 수 있는 것은 다섯입니다

「성적은 되는데 어디를 보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중3 가을에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학교 갈래를 하나씩 설명하는 자료는 많은데, 「같은 아이를 놓고 견주면 어떻게 되는가」를 말해 주는 자료는 적습니다.** 이 편은 그것만 다룹니다.

고를 수 있는 것은 다섯입니다. 앞서 각각을 자세히 다뤘으니 여기서는 **견주기만** 하겠습니다.

| 갈래     | 학교 | 지원 군 | 무엇이 세다     |
|--------|----|------|------------|
| 영재학교   | 8  | 영재   | 수학·과학 연구   |
| 과학고    | 22 | 전기   | 수학·과학 심화   |
| 외고·국제고 | 36 | 후기   | 언어·국제      |
| 자사고    | 33 | 후기   | 학교가 짠 교육과정 |
| 일반고    | —  | 후기   | 내신과 선택 폭   |

**일반고를 표에 넣은 것이 이 자료의 뜻입니다.** 앞의 넷만 놓고 고르는 자료가 많은데, **대부분의 학생에게 실제 선택지는 「일반고냐 아니냐」**입니다.

출처: 각 학교 2027학년도 입학전형 요강(특목고 66교)·2026학년도 요강(자사고 33교). 학교 수는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 24 · 무엇이 갈리나

## 세 가지가 서로 맞바뀌집니다

같은 아이를 놓고 보면 셋이 서로 맞바뀌집니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내줍니다.

|      | 특목고·자사고              | 일반고             |
|------|----------------------|-----------------|
| 내신   | 잘하는 학생이 모여 등급이 낮아집니다 | 상대적으로 받기 수월합니다  |
| 교육과정 | 일반고에 없는 과목이 있습니다     | 학교에 따라 줄 수 있습니다 |
| 또래   | 같은 관심의 학생이 모입니다      | 다양합니다           |
| 돈    | 자사고는 연 850~1356만 원   | 연 71만 원         |

맨 윗줄과 둘째 줄이 정면으로 부딪칩니다. 좋은 교육과정을 얻으면 등급을 내주고, 등급을 얻으면 과목 폭을 내줍니다.

## 5등급제가 이 저울을 조금 옮겼습니다

2025년 고1부터 내신이 5등급제입니다. 1등급이 상위 10%로 넓어졌습니다(9등급제는 4%였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학생이 모인 학교의 내신 부담이 이전보다 줄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특목고 학업중단자가 줄고 일반고에서 늘었다는 공시 추이가 있습니다.

다만 단정하면 안 됩니다. 앞서 다룬 대로 고2·3에서 배우는 과목이 아직 한 바퀴를 안 돌았고, 최종 유불리는 대학이 내신을 어떻게 반영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 그리고 선택 과목이 새 변수입니다

고교학점제에서는 그 학교가 어떤 과목을 여는가가 중요해졌습니다. 특목고는 그 분야 과목이 깊고, 일반고는 학교마다 다릅니다. 일반고를 고르실 때도 교육과정 편성을 보셔야 하는 까닭입니다.

출처: 각 학교 요강·공시 및 학교알리미 학업중단 현황. 학비는 2023년 결산 기준 학부모부담금 집계입니다. 해석은 저희 판단입니다.

## 25 · 어떻게 고르나

## 네 가지 시나리오

같은 성적이라도 다른 답이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흔한 넷을 놓고 보겠습니다.

**Q. 하나 — 수학·과학을 스스로 파고드는 아이**

영재학교·과학고를 볼 만합니다. 다만 앞서 다룬 대로 둘은 다른 제도이고 원서 시기가 다섯 달 차이납니다.

**확인할 것** — 지필(영재성 검사)이 강한지 면담이 강한지. 그리고 **과학고에 붙으면 후기고가 닫힙니다.**

**Q. 둘 — 성적은 좋은데 진로가 아직인 아이**

일반고나 자사고 쪽이 무난합니다. 특목고는 분야가 정해진 학교라 진로가 안 맞으면 3년이 갑니다.

**확인할 것** — 그 학교가 선택 과목을 얼마나 여는가. 진로가 안 정해졌을수록 고를 폭이 넓은 학교가 낫습니다.

**Q. 셋 — 영어가 강하고 언어를 좋아하는 아이**

외고·국제고를 볼 만합니다. 다만 「영어를 잘한다」와 「언어로 생각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다릅니다.

**확인할 것** — 편제표에 수학·과학이 몇 학점인지. 앞서 본 대로 **수학이 15~23학점**이라 「문과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후기 한 장**을 여기 쓰는 것입니다.

**Q. 넷 — 성적이 중상위권이고 내신이 중요한 아이**

일반고가 대체로 맞습니다. 대입에서 학종과 교과가 가장 큰 갈래이고 둘 다 내신을 봅니다.

**확인할 것** — 그 일반고의 학년 규모와 개설 과목. 앞 편에서 다룬 대로 등급은 그 과목을 들은 사람 수에서 나옵니다.

시나리오는 저희 상담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학생마다 다르므로 **이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참고로만** 보십시오.

## 26 · 그래서 무엇을

## 고르는 차례와 점검표

| 차례 | 물을 것                      | 왜 이 순서인가          |
|----|---------------------------|-------------------|
| 1  | 아이가 <b>파고드는 것</b> 이 있는가   | 있으면 그 분야 학교가 열립니다 |
| 2  | <b>3년치 비용</b> 을 감당할 수 있는가 | 중간에 못 내면 아이가 다칩니다 |
| 3  | <b>어느 군</b> 을 쓸 것인가       | 전기에 붙으면 후기가 달힙니다  |
| 4  | 그 학교의 <b>개설 과목</b> 이 맞는가  | 고교학점제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
| 5  | <b>학생</b> 이 다니고 싶어 하는가    | 3년을 보내는 것은 학생입니다  |

1번이 「**성적**」이 아닌 것을 보십시오. 성적은 쓸 수 있는 학교를 정할 뿐이고, 어디가 맞는지는 성적이 말해주지 않습니다.

## 학교를 정하기 전에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아이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것**이 있는가
- ☐ **3년치 비용**을 계산해 보았는가
- ☐ 쓰려는 학교가 **어느 군**인지 아는가
- ☐ 전기에 붙으면 **후기가 달힌다**는 것을 가족이 아는가
- ☐ 그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을 보았는가
- ☐ 내가 들을 **선택 과목**이 개설되는가
- ☐ 일반고라면 **학년 규모**를 확인했는가
- ☐ **학생**이 「여기라면 다니겠다」고 말했는가

마지막 항목이 3년을 정합니다. 부모가 정한 학교에서 버티는 3년은 어느 갈래를 골랐든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적이 되니까 특목고**」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학원은 특목고 준비로 오래 수업할 이유가 있어서 그쪽으로 말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특목고는 더 좋은 학교가 아니라 분야가 정해진 학교입니다. 그 분야가 아이의 것이 아니면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3년이 갑니다. 성적으로 고르지 마시고 아이가 무엇을 파고드는지로 고르십시오.

## 27 · 자주 묻는 것

## 학교 갈래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 Q. 특목고 가서 내신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대입에서 갈 수 있는 문이 좁아집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다만 어느 문이 좁아지는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내신을 계산하는 교과 전형은 확실히 불리해집니다.

서류를 읽는 학종에서는 교육과정과 활동이 함께 읽혀 등급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자리가 생깁니다.

논술과 정시는 내신 비중이 작거나 없습니다.

그러니 특목고를 고르실 때 「어느 문으로 갈 것인가」를 함께 정해 두셔야 합니다. 교과로 갈 생각이면 특목고가 불리하고, 학종·논술·정시로 갈 생각이면 그렇지 않습니다.

문을 안 정하고 학교부터 정하면 3년 내내 맞지 않는 옷을 입습니다.

## Q. 일반고에 가면 손해 아닌가요?

아닙니다. 대입 모집 인원으로 보면 오히려 반대입니다.

수시에서 학종 30,468명 · 교과 26,958명입니다. 둘 다 내신을 보는 전형이고, 수시의 대부분입니다. 내신을 받기 수월한 것이 그만큼 큰 이점입니다.

다만 일반고도 학교마다 크게 다릅니다. 앞 편에서 다룬 대로 학년 규모와 개설 과목을 보셔야 합니다. 「일반고」라는 한 낱말로 묶어 판단하지 마십시오 — 특목고 사이의 차이보다 일반고 사이의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알리미로 그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 편에서 다뤘습니다.

## 한 줄로 남기면

학교 갈래는 위아래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성적은 쓸 수 있는 곳을 정할 뿐이고, 어디가 맞는지는 아이가 무엇을 파고드는지가 정합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공개 요강·공시 자료와 집계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학교의 값과 진학 결과는 신지 않습니다. 시나리오와 판단 기준은 저희 상담 경험에서 나온 것이며 학생마다 다릅니다. 이 자료는 특정 학교를 권하거나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 28 · 바뀐 것부터

## 옛 모델은 상당 부분 막혔습니다

「과학고 가서 2년 만에 졸업하고 의대 간다」

아직도 이 말을 믿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 길은 **상당 부분 막혔습니다**. 판단을 하시기 전에 이것부터 아셔야 합니다.

| 어디가     | 무엇이 막혔나                                 |
|---------|-----------------------------------------|
| 서울대·연세대 | 조기진학자 지원 제한                             |
| 고려대     | 2025학년도부터 조기진학자 지원 제한                   |
| KAIST   | 2026학년도부터 조기진학자 수시 전 전형 지원 불가           |
| 학교장추천전형 | 과학고·영재학교 출신은 조기졸업 여부와 <b>무관하게</b> 지원 불가 |

조기졸업으로 얻는 「1년」이 예전만큼 값이 없어졌습니다. **2년 만에 나가려고 특목고를 고르는 판단은 이제 성립하지 않습니다.**

### 왜 이렇게 됐는가

조기졸업은 원래 **드물게 쓰는 예외**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 먼저 대학에 간다」는 목표로 굳어지면서 학교의 교육과정이 흔들렸습니다. 3년치를 2년에 몰아 듣느라 **연구 활동과 실험이 뒷자리로 밀렸습니다.**

대학이 문을 좁힌 자리가 여기입니다. 과학고·영재학교를 만든 까닭은 **과학을 깊게 하라는 것인데**, 조기졸업 경쟁이 그 반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제한은 벌이 아니라 **원래 자리로 돌리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 그러면 아무 값도 없어졌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값이 있는 자리가 옮겨졌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교육과정 그 자체**입니다. 일반고에 없는 고급·심화 과목, 실험 장비, 3년에 걸친 연구 활동, 그리고 **같은 것에 관심 있는 또래**입니다. 이것들은 제도가 바뀌어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몇 년 만에 나갈 수 있나**」가 아니라 「**이 3년을 쓸 아이인가**」입니다. 뒤에서 그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각 대학 2026·2027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해마다 바뀌니 지원 연도의 요강을 확인하십시오.

## 29 · 무엇을 고르는가

## 다섯 갈래와 지원할 수 있는 횟수

「특목고」라고 뭉뚱그려 부르지만 안에 다섯 갈래가 있습니다. 갈래마다 지원 군이 달라서, 몇 번 쓸 수 있는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갈래   | 학교 수 | 지원 군 | 무엇을 하는 곳인가           |
|------|------|------|----------------------|
| 영재학교 | 8    | 영재   | 수학·과학 연구. 고등학교가 아닙니다 |
| 과학고  | 22   | 전기   | 수학·과학 심화. 시·도 단위     |
| 외국어고 | 28   | 후기   | 전공어 + 인문·사회          |
| 국제고  | 8    | 후기   | 국제 계열 교과 · 영어 수업 비중  |
| 자사고  | 33   | 후기   | 학교가 교육과정을 스스로 짭니다    |

군이 같으면 한 번뿐입니다. 여기서 실수가 가장 많이 납니다.

## 후기고 셋은 서로 경쟁 관계입니다

외고·국제고·자사고는 모두 후기고입니다. 일반고도 후기고입니다. 후기에서는 **한 곳만** 쓸 수 있습니다. 「외고 하나 자사고 하나 넣어 두자」는 **안 됩니다**. 이중지원입니다.

이중지원이 확인되면 **최종 합격 뒤에도 취소**됩니다. 다만 한 가지는 허용됩니다 — 외고·국제고·자사고에 쓰면서 **교육감 선발 후기 일반고 2단계에 함께 지원**하는 것은 이중지원이 아닙니다. 떨어졌을 때 갈 곳을 남겨 두는 장치입니다.

## 그래서 실제로 쓸 수 있는 횟수

제도상 **최대 세 번**입니다 — 영재학교에서 한 번, 전기고에서 한 번, 후기고에서 한 번. 순서도 시기가 정해 줍니다. 영재학교가 여름에 끝나고, 전기고가 가을, 후고가 겨울입니다. 앞에서 떨어지면 뒤로 갑니다.

**다만 앞에서 붙으면 뒤가 닫힙니다.** 과학고에 합격하면 **등록을 포기**해도 후기고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전기고 원서는 붙었을 때를 각오하고 넣으셔야 합니다.

출처: 각 학교 2027학년도 입학전형 요강(특목고 66교) 및 2026학년도 요강(자율형사립고 33교), 시·도 교육청 고입전형 기본계획. 학교 수는 2026년 8월 기준.

## 30 · 내신 5등급제

## 유리해 보이지만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6년 고1부터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특목고가 유리해진 것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흐름은 확인됩니다. 학업중단자 추이가 학교 유형별로 갈렸습니다.

| 학교       | 2025  | 2026   | 바뀜     |
|----------|-------|--------|--------|
| 외고       | 148   | 116    | -21.6% |
| 국제고      | 31    | 15     | -51.6% |
| 과학고      | 24    | 13     | -45.8% |
| 전국단위 자사고 | 47    | 43     | -8.5%  |
| 지역단위 자사고 | 131   | 157    | +19.8% |
| 일반고      | 9,847 | 10,450 | +6.1%  |

특목고에서 나가는 학생이 줄었고 일반고에서는 늘었습니다. 내신 부담을 어느 쪽이 크게 느꼈는지가 보입니다. 등급이 9개에서 5개로 줄면 한 등급의 폭이 넓어지고, 그만큼 「한 문제 차이로 등급이 갈리는」 일이 줄어듭니다. 학생이 몰린 학교일수록 이 변화가 크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 — 아직 한 바퀴가 안 돌았습니다.** 5등급제는 2026년 고1에 처음 적용됐습니다. 고2·고3에서 주로 배우는 진로선택·전문 교과는 아직 겪지 않았습니다. **지금 숫자는 첫해** 것이고, 첫해 숫자로 3년을 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둘 — 반대 논거가 있습니다.** 고2·3의 진로선택·전문 과목까지 상대평가를 함께 두므로 특목고의 내신 불리함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최종 유불리는 결국 **대학이 내신을 어떻게 반영하는가**와 **정시 선발 비율**이 정합니다. 그 둘은 아직 움직이는 중입니다.

출처: 학교알리미 공시 학업중단자 현황(2025·2026). 해석은 저희 판단이며, 위에 적은 대로 반대 논거도 있습니다.

## 31 · 판단 기준

## 이 셋을 먼저 물어보십시오

보내야 하나 마나를 남이 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물어볼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 Q. 하나 — 아이가 그 과목을 좋아하는가

과학고 교육과정은 일반고와 다릅니다. 고급·AP 과목이 들어가고 필수이수가 줄어듭니다. **과학이 싫은 아이에게는 3년이 갑니다.** 「대학 잘 가려고」 만으로 버티는 자리가 아닙니다.

## Q. 둘 — 중간에서 버틸 수 있는가

특목고에 가면 **지금 반에서 1등 하던 아이가 중간이 됩니다.** 그 자리를 견디는 아이가 있고 무너지는 아이가 있습니다. 성적보다 이것 먼저 보셔야 합니다.

## Q. 셋 — 떨어졌을 때 어디로 가는가

과학고에 붙으면 등록을 안 해도 그해 후기고를 못 씁니다. **붙었을 때와 떨어졌을 때를 다 정해 두고** 넣으셔야 합니다. 급하게 정하면 그때부터 3년이 어긋납니다.

## 보내기로 정하기 전에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아이가 그 과목을 **시키지 않아도** 붙들고 있는가
- ☐ 지금 **학교 수업** 에서 남는 시간이 있는가 — 없다면 3년이 더 뻘뻘해집니다
- ☐ 가려는 학교의 **교육과정 편제표** 를 실제로 읽어 보았는가
- ☐ 그 학교가 **어느 군** 인지 알고 있는가 (영재 · 전기 · 후기)
- ☐ 합격했을 때 **다른 문이 닫히는지** 확인했는가
- ☐ 떨어졌을 때 갈 학교를 **정해 두었는가**
- ☐ 기숙 생활을 **아이가** 원하는가 — 부모가 아니라
- ☐ 「1년 일찍 졸업」 이 **판단의 이유가 아닌가**

마지막 항목이 「그렇다」 이면 다시 보셔야 합니다. 앞에서 본 대로 그 길은 상당 부분 막혔습니다.

##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특목고가 답인 아이가 있고 아닌 아이가 있습니다.** 학원은 보내는 쪽으로 말할 이유가 있습니다 — 준비 과정이 길고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대로 말씀드립니다. **아이가 그 과목을 좋아하지 않으면 보내지 마십시오.** 3년을 버티게 하는 것은 성적이 아니라 그것입니다.

## 32 · 자주 묻는 것

## 고입 학부모님이 실제로 하시는 질문

## Q. 특목고 가면 내신에서 손해 아닌가요?

잘하는 학생이 모이면 **같은 실력으로 받는 등급이 낮아집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 손해를 어떻게 볼지는 **어느 전형으로 갈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내신을 정량으로 세는 전형에서는 불리합니다. 반대로 **서류를 정성으로 읽는 전형**에서는 교육과정과 활동이 함께 읽힙니다. 일반고에 없는 과목을 들었다는 것이 거기서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손해다·아니다**」가 아니라 「**어느 문으로 갈 것인가**」입니다. 그 문을 안 정하고 학교부터 정하면, 3년 내내 맞지 않는 옷을 입습니다.

## Q. 일반고에서 1등 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1등 할 것이다**」가 가정이라는 점을 보셔야 합니다.

특목고에 갈 만한 아이들이 일반고로 가면 그 학교의 상위권도 그만큼 두꺼워집니다. 「**일반고에 가면 자동으로 1등**」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아이가 3년을 어디서 잘 지낼지**를 보시고, 그다음에 성적을 보십시오. 반대로 하면 **버티는 데 3년을 다 씁니다.** 그리고 버티기만 한 3년은 어느 전형에서도 잘 읽히지 않습니다.

## 한 줄로 남기면

특목고는 **더 좋은 학교가 아니라 다른 학교**입니다. 물어야 할 것은 「**갈 수 있는가**」가 아니라 「**거기서 3년을 쓸 아이인가**」입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공개 요강·공시 자료와 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사실은 출처를 밝힌 자료에 근거하고, 판단 기준은 저희 상담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 다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도는 해마다 바뀌니 지원 연도의 요강을 확인하십시오. 이 자료는 합격 여부나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33 · 숫자부터

과학에 46학점을 씁니다

「과학고는 과학을 더 많이 하는 학교죠?」

맞습니다. 다만 얼마나 더 하는지를 아시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편제표를 열어 보면 「조금 더」가 아닙니다. 학교의 무게중심 자체가 다릅니다.

어느 과학고의 3년 편제표입니다. 졸업까지 192학점을 듣고, 그 배분이 이렇습니다.

| 교과군          | 학점 | 일반고와 견주면     |
|--------------|----|--------------|
| 과학           | 46 | 여기에 무게가 실립니다 |
| 수학           | 32 | 과학 다음으로 큼니다  |
| 사회(역사·도덕 포함) | 12 | 줄어듭니다        |
| 국어           | 6  | 크게 줄어듭니다     |
| 영어           | 6  | 크게 줄어듭니다     |

수학과 과학을 합치면 78학점입니다. 국어와 영어를 합친 12학점의 여러 배입니다.

이 표가 알려 주는 것은 「과학을 더 한다」가 아니라 「나머지를 덜 한다」입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 한쪽이 커지면 다른 쪽이 줄어듭니다. 국어와 영어가 그 자리입니다. 이것을 각오하실 수 있는지가 판단의 절반입니다.

출처: 경기북과학고 학교 발표 교육과정 편제표(학교발표). 학교마다 편성이 다르니 목표 학교의 편제표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 34 · 무엇을 배우나

# 전문교과 34과목의 이름들

일반고에 **아예 없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이름만 보셔도 결이 보입니다.

| 교과   | 과목 | 무엇을                                                                                  |
|------|----|--------------------------------------------------------------------------------------|
| 수학   | 4  | 전문 수학(6) · 고급 대수(4) · AP 미적분학 I (5) · 수학과제 탐구(5)                                     |
| 물리   | 6  | 물리학 실험(2) · 역학과 에너지(3) · 심화 물리학(3) · 고급 물리학(3) · AP일반물리 I (4)* · 물리학 주제 토론(3)        |
| 화학   | 6  | 고급 화학(2) · 물질과 에너지(3) · 화학 실험(2) · 화학심화탐구(2) · AP일반화학 I (4)* · 화학 주제 토론(3)           |
| 생명과학 | 6  | 생명과학 실험(2) · 생물의 유전(3) · 고급 생명과학(3) · 심화 생명과학 탐구(2) · AP일반생물학(4)* · 생명과학 주제 토론(3)    |
| 지구과학 | 6  | 지구과학 실험(2) · 고급 지구과학(3) · 지구 시스템의 이해(3) · 고급 지구과학 실험(2) · 지구과학개론(4) · 지구과학 주제 토론(3)  |
| 정보과학 | 6  | 파이썬프로그래밍(2) · 알고리즘 설계(2) · 정보과학(2) · 인공지능 알고리즘(2) · AP프로그래밍과문제해결(4)* · 정보과학 과제 연구(3) |

모두 **34과목**입니다. 여기에 **실험**이 교과로 따로 들어 있는 것을 보십시오 —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 지구과학 실험. **일반고에서는 수업 안에서 잠깐 하는 것이 여기서는 한 과목**입니다.

「주제 토론」이라는 과목도 눈여겨보실 만합니다. 물리·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마다 따로 있습니다. **혼자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남 앞에서 말하고 반박을 받는 수업**입니다. 말수가 적은 아이에게는 이것이 3년 내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경기북과학고 학교 발표 교육과정 편제표. 괄호 안은 학점입니다.

## 35 · AP와 연구활동

## 대학 과목을 미리 듣습니다

편제표에 AP가 붙은 과목이 있습니다.

\* 는 대학과정 학점 선 취득 이수제(AP) 과목. AP 미적분학 I 은 학교 지정으로 3학년 1학기에, AP일반물리 I · AP일반화학 I · AP일반생물학·AP프로그래밍과문제해결은 3학년 1학기 학생 선택(택3) 안에 들어 있다.

AP 는 대학 과정을 고등학교에서 미리 듣고 학점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미적분학」·「일반물리학」·「일반화학」·「일반생물학」은 대학 1학년 과목의 이름입니다. 3학년 때 이 과목들을 듣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하나 생깁니다. 「AP 를 들으면 대학을 빨리 나온다」는 것인데, 인정 여부와 범위는 진학하는 대학이 정합니다. 들었다고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AP 를 목적으로 학교를 고르지 마십시오.

## 연구활동 — 이것이 진짜 차이입니다

| 이름            | 학점 | 언제                                     |
|---------------|----|----------------------------------------|
| 과학창의연구        | 2  | 1학년 2학기, 교과 이수단위에 넣지 않고 괄호로 표기(이수/미이수) |
| 자연학술탐사        | 1  | 2학년 1학기, 괄호 표기(이수/미이수)                 |
| 주제 탐구(R&E) 심화 | 2  | 2학년 2학기, 괄호 표기(이수/미이수)                 |

R&E(주제 탐구)는 학생이 주제를 정해 몇 달에 걸쳐 실제로 탐구하는 과목입니다. 지도 교사가 붙고, 끝에 발표와 보고서가 있습니다. 일반고에서 이만한 규모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기졸업이 막힌 뒤에도 남는 값입니다. 1년 일찍 나가는 것은 상당 부분 막혔지만, 3년에 걸쳐 연구를 해 본 경험은 그대로 남습니다. 특목고를 고르는 이유가 여기여야 3년이 아깝지 않습니다.

출처: 경기북과학교 학교 발표 교육과정 편제표. AP 인정 범위는 진학하는 대학이 정하며, 학교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 36 · 그래서 무엇을

## 읽는 법과 점검표

학교를 고르실 때 **편제표**를 직접 여시는 것이 설명회 열 번보다 낫습니다. 볼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 차례 | 어디를        | 무엇을 알 수 있나        |
|----|------------|-------------------|
| 1  | 교과군별 학점 표  | 이 학교가 무엇에 무게를 두는가 |
| 2  | 국어·영어 학점   | 줄어드는 쪽을 견딜 수 있는가  |
| 3  | 실험·연구 과목 수 | 말과 손을 얼마나 쓰는가     |
| 4  | 선택 과목의 폭   | 아이가 고를 여지가 있는가    |

**2번을 특히 보십시오.** 과학고를 나와도 대학은 국어와 영어를 봅니다. 학교에서 덜 듣는 만큼 **스스로 챙겨야 하는 과목**이 됩니다. 이것 모르고 들어가면 3학년에 당황합니다.

## 과학고를 고르기 전에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목표 학교의 **편제표** 를 직접 열어 보았는가
- ☐ **국어·영어 학점** 이 몇인지 확인했는가
- ☐ 줄어드는 과목을 **스스로 챙길 수 있는** 아이인가
- ☐ **실험 과목** 이 몇 개인지 보았는가
- ☐ **주제 토론** 수업을 아이가 견딜 수 있는가
- ☐ **R&E** 같은 장기 연구를 해 볼 마음이 있는가
- ☐ AP 를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은가**
- ☐ 이 교육과정을 **아이에게 보여 주었는가**

마지막 항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3년을 보내는 것은 아이입니다.** 편제표를 함께 읽어 보십시오 — 「이거 재밌겠다」와 「이걸 3년이나?」 중 어느 쪽이 나오는지가 답입니다.

##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제표를 읽는 데는 학원이 필요 없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고, 한 시간이면 읽으십니다. 그리고 그 한 시간이 **설명회에서 듣는 어떤 말보다 정확합니다** — 설명회는 학교가 보여 주고 싶은 것을 보여 주고, 편제표는 3년 동안 실제로 할 일을 보여 줍니다.

## 37 · 자주 묻는 것

## 고입 학부모님이 실제로 하시는 질문

## Q. 과학고 나오면 의대에 못 가나요?

제도로 막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좁아진 자리가 여럿 있습니다.

첫째, **조기졸업으로 1년 일찍 가는 길**은 상당 부분 막혔습니다. 주요 대학이 조기진학자 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교장추천전형**은 과학고·영재학교 출신이 조기졸업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할 수 없습니다.

셋째, 학교 차원에서 권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과학고는 이공계 연구자를 기르라고 만든 학교**이고, 그 목적으로 예산이 들어갑니다.

정리하면 「불가능」이 아니라 「좁고, 학교의 목적과 어긋난다」입니다. 의대가 목표라면 **이 교육과정을 3년 듣는 것이 그 목표에 맞는지부터** 보십시오 — 국어·영어가 크게 줄어드는 편성입니다.

## Q. 따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힘듭니다**. 편제표에서 보신 대로 수학·과학이 대부분이고, 진도가 빠르며, 주위가 다 잘합니다.

다만 「따라간다」의 뜻을 좁게 잡지 마십시오. 등수로 보면 절반은 반드시 아래쪽입니다 — 잘하는 아이들만 모였으니 당연합니다. 등수가 아니라 「수업이 재미있는가」로 보셔야 3년을 견딥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풀이해 드리는 말이 이것입니다. **아이가 그 과목을 좋아하지 않으면 보내지 마십시오**. 좋아하면 중간이어도 3년을 잘 씁니다. 좋아하지 않으면 1등이어도 버티기만 합니다.

## 한 줄로 남기면

과학고의 값은 **빨리 졸업하는 데 있지 않고 3년 동안 무엇을 하는가에 있습니다**. 편제표가 그 3년을 미리 보여 줍니다.

**거기서부터 판단하십시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한 학교의 공개 편제표를 예로 든 것입니다. 학교마다 편성이 다르니 목표 학교의 자료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진학 결과나 합격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 38 · 숫자부터

## 수학을 안 하는 학교가 아닙니다

「외고 가면 이과는 못 가는 거죠?」

가장 자주 받는 오해입니다. 그리고 이 오해 때문에 **맞는 아이가 시작도 안 해 보고 접는 일**이 생깁니다. 편제표를 열어 보면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편제표가 공개된 외고·국제고 **12곳**을 세어 보았습니다. 3년 동안 듣는 **수학·과학 학점**입니다.

| 교과     | 이수 학점     | 필수이수 기준 | 전주면           |
|--------|-----------|---------|---------------|
| 수학     | 15~23학점   | 8학점     | 기준의 두 배 안팎    |
| 과학     | 8~14학점    | 10학점    | 기준 언저리에서 그 이상 |
| 졸업 총학점 | 174~196학점 |         | 일반고보다 많습니다    |

센 12곳이 모두 수학을 필수이수 기준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수학을 안 한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학을 23학점까지 편성한 학교도 있습니다.

| 수학 이수 학점 | 학교 수 |
|----------|------|
| 20학점 이상  | 3    |
| 17~19학점  | 6    |
| 15~16학점  | 3    |

그러면 무엇이 다른가. **더하는 것이 다릅니다**. 일반고와 비슷하게 보통교과를 듣고, 그 **위에** 전공 과목을 엮습니다. 그래서 총학점이 190을 넘는 곳이 많습니다. **덜 하는 학교가 아니라 더 하는 학교**입니다.

출처: 각 학교가 공개한 교육과정 편제표(2026년 8월 기준) 12곳을 집계. 학과별 편성이 있는 학교는 공통 편성과 첫 학과를 기준으로 셉습니다. 학교마다 편성이 다르니 목표 학교의 편제표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 39 · 무엇이 다른가

## 전공어에 68학점을 업습니다

외고의 뼈대는 단순합니다. **보통교과 106~110학점 + 전공 68학점**입니다.

| 무엇    | 학점      | 어떤 과목                            |
|-------|---------|----------------------------------|
| 보통교과  | 106~110 |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체육·예술 — 일반고와 같은 결 |
| 전공 과목 | 68      | 심화 영어 + 전공어 + 국제계열 과목            |

68학점을 어떻게 나누는지가 **학과를 가릅니다**. 방향이 서로 반대입니다.

| 학과              | 영어      | 제2외국어   |
|-----------------|---------|---------|
| 영어과             | 41~42학점 | 18~23학점 |
| 중국어과·<br>일본어과 등 | 18~23학점 | 41~42학점 |

즉 어느 학과를 가도 **영어와 제2외국어를 둘 다** 합니다. 비중만 뒤집힙니다. 「중국어과 가면 영어를 안 한다」가 아닙니다 — 18~23학점은 여전히 영어입니다.

## 과목 이름을 보시면 결이 보입니다

심화 영어 I·II, 심화 영어 독해 I·II, 심화 영어 작문 I·II, 심화 영어 회화 I·II, **영어 비평적 읽기와 쓰기, 비판적 사고와 영어 작문**.

뒤의 둘을 보십시오. **영어로 읽고 따지고 쓰는 과목**입니다. 회화가 아니라 **글을 다루는 훈련**이 3년 내내 이어집니다.

전공어도 마찬가지로입니다 — 전공 기초 → 회화 I → 독해와 작문 I → 회화 II → 문화 → 독해와 작문 II 순으로 짹니다.

**여섯 학기를 끊기지 않게**

그래서 외교에서 3년을 보낸다는 것은 「언어로 생각하는 훈련을 오래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맞는 아이가 있고 아닌 아이가 있습니다. 이과·문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출처: 각 학교 공개 교육과정 편제표. 학점은 학교·학과마다 다릅니다.

40 · 국제고는 또 다릅니다

전공이 언어가 아니라 과목입니다

국제고는 이름이 비슷해서 외교와 묶이지만 전공의 성격이 다릅니다.

|       | 외국어고                 | 국제고                          |
|-------|----------------------|------------------------------|
| 학교 수  | 28                   | 8                            |
| 전공    | 언어 — 학과가 언어로 나뉩니다    | 국제계열 과목 — 학과를 안 나누는 곳이 많습니다  |
| 대표 과목 | 심화 영어 · 전공어 회화·독해·작문 | 국제 정치 · 국제 경제 · 세계 문제와 미래 사회 |
| 제2외국어 | 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필수       | 여러 언어 중 택1로 3년               |

어느 국제고는 「외국어·국제 계열(사회)」로만 36학점을 편성했습니다. 국제 정치·국제 경제 같은 과목이 사회 교과로 잡혀 있습니다. 외교가 언어를 깊게 판다면, 국제고는 사회를 영어로 판다고 보시면 가깝습니다.

영어 수업의 결도 다릅니다

어느 국제고는 영어 전공 과목으로 퍼블릭 스피킹과 프레젠테이션 · 영어 토론과 시사 · 영어 비판적 사고와 논증 · 영어 연구 및 세미나 · 영문학을 편성했습니다. 영어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수업이 교과로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남 앞에서 말하는 것을 즐기는 아이에게는 3년이 짧고, 힘들어하는 아이에게는 3년이 깁니다. 성적보다 이쪽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출처: 각 학교 공개 교육과정 편제표. 국제고마다 편성 차이가 큼니다.

## 41 · 그래서 무엇을

## 고르는 차례와 점검표

외고·국제고를 볼지 말지는 **이 순서로 물으면** 정해집니다.

| 차례 | 물을 것                      | 답에 따라         |
|----|---------------------------|---------------|
| 1  | 아이가 <b>읽고 쓰는 것</b> 을 견디는가 | 아니면 3년이 겁니다   |
| 2  | <b>말하고 토론하는</b> 수업이 맞는가   | 국제고는 특히 그렇습니다 |
| 3  | 영어 <b>내신</b> 이 안정적인가      | 1단계가 영어만 봅니다  |
| 4  | <b>출결</b> 이 깨끗한가          | 중1부터 봅니다      |
| 5  | 후기 한 장을 <b>여기</b> 쓸 것인가   | 자사고와 함께 못 씁니다 |

**1번과 2번이 3번보다 앞**인 것을 보십시오. 영어를 잘하는 것과 **언어로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다릅니다. 앞엿것만 보고 들어가면 **잘하는데 재미없는 3년**이 됩니다.

## 외고·국제고를 고르기 전에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목표 학교의 **편제표** 를 직접 열어 보았는가
- ☐ **수학·과학 학점** 이 몇인지 확인했는가
- ☐ 학과에 따라 **전공어 배분** 이 다른 것을 알고 있는가
- ☐ 제2외국어를 **3년** 하게 되는 것을 아이가 아는가
- ☐ 영어 **내신 네 학기** 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보았는가
- ☐ **출결 감점** 이 얼마인지 확인했는가
- ☐ 후기 한 장을 **여기에 쓸 각오** 가 되었는가
- ☐ 편제표를 **아이와 함께** 읽었는가

「이과 갈 수 있나」가 아직 걸리신다면 첫 항목으로 돌아가십시오. **편제표에 수학이 몇 학점인지**가 답입니다.

##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를 잘한다는 **이유만으로 외고**를 권하지 않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아이는 일반고에서도 그 과목으로 유리합니다. 외고가 값이 있는 것은 **언어를 깊게 다루는 3년**을 원할 때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잘하는 과목 하나 때문에 **나머지 열 과목의 환경을 바꾸는** 셈이 됩니다.

## 42 · 자주 묻는 것

## 고입 학부모님이 실제로 하시는 질문

## Q. 외교 나와서 이공계로 갈 수 있나요?

제도로 막혀 있지 않습니다. 지원 자격에 출신 고교 갈래로 거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챙기실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대로 과학이 8~14학점입니다. 일반고 이과 학생이 듣는 물리·화학·생명과과학의 심화 과목까지는 **편성이 없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공계를 생각하신다면 **목표 학교 편제표에서 과학 선택과목이 어디까지 열리는지**를 먼저 보십시오. 학교마다 다릅니다. 「외고라서 안 된다」가 아니라 「이 학교 편제표에 있느냐」가 질문입니다.

## Q. 제2외국어를 3년 하면 손해 아닌가요?

무엇과 견주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대입 점수만 보면** 제2외국어를 반영하는 자리는 넓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다른 과목을 하면 점수가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이견 사실입니다.

다만 외교의 전공 68학점은 **떼어 낼 수 있는 부품이 아닙니다.** 그것을 빼면 그냥 일반고가 됩니다. 「전공을 3년 하는 것이 값이 있는가」가 학교를 고르는 질문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여쭙습니다. 「이 아이가 언어를 하나 더 갖는 것이 3년을 쓸 만한 일인가.」 그렇다면 손해가 아니고, 아니라면 **학교를 잘못 고른 것**입니다.

## 한 줄로 남기면

외고·국제고는 **문과 학교가 아니라 언어를 더 하는 학교**입니다. 빼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이니**, 물어야 할 것은 「무엇을 못 하게 되나」가 아니라 입니다.

## 「이 없는 것을 원하나」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각 학교가 공개한 교육과정 편제표를 정리한 것입니다. 편제표가 공개된 학교만 실었으며, 학교·학과마다 편성이 다릅니다. 지원 전에는 목표 학교의 최신 편제표와 요강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이 자료는 진학 결과나 합격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 43 · 숫자부터

## 학비가 일반고의 열아홉 배입니다

## 「자사고 한번 알아볼까요.」

설명회에서 교육과정과 진학 실적은 자세히 들으십니다. 그런데 **3년치 돈이 얼마인지는** 잘 안 나옵니다. 판단에서 가장 크게 갈리는 자리인데도 그렇습니다. 그것부터 보시겠습니다.

학생 한 명당 **학부모부담금**입니다. 수업료만이 아니라 학교운영지원비·수익자부담경비를 모두 합한 **1년치**입니다.

| 어디        | 1년 부담금   | 일반고 대비 | 3년이면        |
|-----------|----------|--------|-------------|
| 전국단위 자사고  | 1,355만 원 | 약 19배  | 약 4,067만 원  |
| 광역단위 자사고  | 850만 원   | 약 12배  | 약 2,549만 원  |
| 일반고       | 71만 원    | —      | 약 214만 원    |
| 가장 비싼 자사고 | 3,657만 원 | 51.3배  | 약 1억 971만 원 |

이 숫자를 **겁주려고** 심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알고 정하시라고** 심습니다. 1학년 때 감당하다가 2학년에 어려워지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아이에게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 있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 기숙사비, 교복, 교재, 방과후, 그리고 **사교육**입니다. 전국단위 자사고는 대개 기숙이라 **실제로** 나가는 돈은 **이보다** 큼니다.

출처: 김문수 의원실·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고등학교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2023년 결산 기준)」. 3년 환산은 같은 금액이 3년 이어진다고 가정한 **저희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학교와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 44 · 전국형과 광역형

# 33곳이 둘로 갈립니다

자사고는 **33곳**입니다. 그리고 **모집 단위**로 크게 갈립니다.

| 갈래   | 학교 수 | 누가 지원할 수 있나               |
|------|------|---------------------------|
| 전국단위 | 10   | 전국 어디서나. 대개 <b>기숙</b> 입니다 |
| 광역단위 | 23   | 그 시·도의 중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거주자 |

앞의 표에서 보셨듯 **돈도 여기서 갈립니다**. 전국단위가 1,355만 원, 광역단위가 850만 원입니다. **1.6배** 차이입니다. 기숙 여부가 크게 작용합니다.

## 이름으로 짐작하지 마십시오

「전국에 이름이 알려진 학교 = 전국단위」가 **아닙니다**. 서울의 이름난 자사고 중에도 광역단위가 있습니다. **요강의 「모집 단위」 칸을 직접 보셔야 합니다**.

저희도 이 자료를 만들면서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낱말로 찾게 했더니 **서울 광역단위 학교를 전국단위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강 원문에 적힌 것만** 씁니다. 학부모님도 같은 방식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지역 쏠림이 있습니다

33곳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니 사시는 곳에 따라 **광역단위로 쓸 수 있는 학교가 아예 없거나 한두 곳**일 수 있습니다. 그때 남는 선택지는 **전국단위 10곳**인데, 그쪽은 기숙이고 학비가 큼니다. 「자사고를 볼까」가 **지역에 따라 전혀 다른 질문**이 되는 까닭입니다.

출처: 각 학교 2026학년도 입학전형 요강 및 학교알리미 공시(2026년 8월 기준). 모집 단위는 요강 원문에 적힌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 45 · 무엇이 다른가

## 자율의 값과 대가

자사고가 일반고와 다른 점은 이름 그대로 **자율**입니다. 다만 그 자율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무엇이   | 자사고                | 일반고         |
|-------|--------------------|-------------|
| 교육과정  | 학교가 스스로 짭니다        | 국가 기준을 따릅니다 |
| 학생 선발 | 학교가 뽑습니다           | 배정이 많습니다    |
| 재정    | 학부모 부담이 큼니다        | 국가·교육청 지원   |
| 지원 군  | 둘 다 후기고 — 한 번만 씁니다 |             |

맨 아랫줄이 실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자사고는 후기고**입니다. 외고·국제고와 같은 군입니다. 「외고 하나 자사고 하나」가 안 됩니다. 후기에서 한 장입니다.

## 「자율」이 늘 좋은 쪽으로만 쓰이지는 않습니다

교육과정을 스스로 짭다는 것은 **학교의 색이 진하다**는 뜻입니다. 그 색이 아이에게 맞으면 3년이 값집니다. 안 맞으면 **피할 곳이 없습니다**. 일반고보다 **편차가 큼** — 좋은 쪽으로도, 나쁜 쪽으로도.

그래서 자사고는 「자사고라서」가 아니라 「이 학교라서」로 **고르셔야** 합니다. 같은 자사고끼리도 교육과정이 서로 많이 다릅니다. **편제표와 학교 생활 규정을 학교별로** 보셔야 하는 까닭입니다.

## 내신은 어떻게 되나

선발해서 뽑으니 **잘하는 학생이 모입니다**. 같은 실력으로 받는 등급이 낮아집니다. 다만 2026년 고1부터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어 이 부담이 이전보다 줄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다만 첫째 자료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 고2·3 과목이 아직 한 바퀴를 안 돌았습니다.

출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자율형 사립고 조항, 각 학교 요강 및 공시 자료. 내신 관련 해석은 저희 판단이며 반대 논거도 있습니다.

## 46 · 그래서 무엇을

## 고르는 차례와 점검표

자사고는 돈과 군(群)이 함께 걸리는 갈래라 순서가 중요합니다.

| 차례 | 정할 것               | 왜 이 순서인가          |
|----|--------------------|-------------------|
| 1  | 3년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가  | 중간에 못 내면 아이가 다칩니다 |
| 2  | 후기 한 장을 여기 쓸 것인가   | 외고·국제고와 못 겹칩니다    |
| 3  | 전국형이면 기숙을 아이가 원하는가 | 3년을 집 밖에서 지냅니다    |
| 4  | 그 학교의 교육과정이 맞는가    | 학교마다 색이 다릅니다      |
| 5  | 떨어지면 어디로 가는가       | 후기 일반고 2단계를 챙기십시오 |

1번을 맨 앞에 둔 까닭이 있습니다. 학비는 합격한 뒤에 협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3년 중간에 어려워지면 전학이라는 큰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넣기 전에 3년치로 계산해 보십시오.

## 자사고를 고르기 전에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그 학교의 연간 부담금 을 학교에 직접 확인했는가
- ☐ 기숙사비·교재비 등 부담금에 안 들어간 것 을 더해 보았는가
- ☐ 3년치 로 계산해 보았는가
- ☐ 요강의 모집 단위 칸을 직접 보았는가
- ☐ 후기 한 장을 여기 쓸 각오 가 되었는가
- ☐ 전국형이면 기숙 을 아이가 원하는가
- ☐ 그 학교 편제표 를 읽어 보았는가
- ☐ 후기 일반고 2단계 동시 지원 을 챙겼는가

첫 세 항목은 학교 행정실에 전화 한 통이면 확인됩니다. 공시 자료보다 학교에 직접 물으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 해마다 바뀝니다.

##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비가 부담되신다면, 그 이유만으로 자사고를 접으셔도 됩니다. 부끄러운 판단이 아닙니다. 앞의 표에서 보신 대로 3년에 수천만 원이 걸립니다. 그 돈을 아이가 정말 필요할 때 쓰려고 남겨 두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학교 이름이 3년 뒤를 정하지 않습니다.

## 47 · 자주 묻는 것

## 고입 학부모님이 실제로 하시는 질문

## Q. 자사고에 가면 대학을 더 잘 가나요?

저희는 그 질문에 숫자로 답하지 않습니다. 진학 실적은 학교가 무엇을 해 주었는지와 애초에 어떤 학생이 들어왔는지가 섞여 있어 갈라내기 어렵습니다. 선발해서 뽑는 학교의 실적을 **학교의 성과로만 읽으면 과대평가가 됩니다.**

대신 이렇게 여쭙습니다. 「**같은 아이가 일반고에 갔다면 어땠을까.**」 이 물음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자리는 **교육과정과 환경이 그 아이에게 확실히 맞을 때**뿐입니다.

그리고 **비용은 확실하고 결과는 불확실합니다.** 3년에 수천만 원은 정해진 값이고, 진학은 아닙니다. 그 비대칭을 알고 정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 Q. 사회통합전형으로 가면 학비가 줄어드나요?

**학교와 전형에 따라 다릅니다.** 반드시 학교에 직접 확인하십시오.

자사고는 정원의 일정 비율을 **사회통합전형**으로 뽑습니다. 해당되는 경우 학비 감면이 함께 가는 학교가 있습니다. 다만 **감면 범위가 학교마다 다르고**, 부담금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격이 되실 수 있다면 **반드시 알아보십시오.** 모르고 일반전형으로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격 요건은 요강의 사회통합전형 쪽에 적혀 있고, **감면은 요강이 아니라 학교 행정실에 물으셔야** 정확합니다.

## 한 줄로 남기면

자사고는 「**좋은 학교인가**」 보다 「**이 값을 치르고 이 3년을 살 것인가**」로 정하는 갈래입니다. 그 계산은 집집마다 다르고, **다른 답이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공개 요강·공시 자료와 보도된 집계를 정리한 것입니다. 학부모부담금은 2023년 결산 기준 집계이며 학교·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 금액은 반드시 해당 학교에 직접 확인하십시오. 이 자료는 진학 결과나 합격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 48 · 숫자부터

## 갈래마다 열아홉 배 벌어집니다

「고등학교 3년에 돈이 얼마나 드나요.」

설명회에서 교육과정과 진학 실적은 자세히 들으십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답해 주는 자리는 드뭅니다. 판단을 가장 크게 가르는 자리인데도 그렇습니다.**

학생 한 명당 **1년 학부모부담금**입니다. 수업료만이 아니라 학교운영지원비·수익자부담경비를 모두 합한 값입니다.

| 어디        | 1년       | 3년          | 일반고 대비 |
|-----------|----------|-------------|--------|
| 전국단위 자사고  | 1,356만 원 | 약 4,067만 원  | 19배    |
| 광역단위 자사고  | 850만 원   | 약 2,549만 원  | 12배    |
| 일반고       | 71만 원    | 약 214만 원    | —      |
| 가장 비싼 자사고 | 3,657만 원 | 약 10,971만 원 | 51.3배  |

**3년으로 환산하면 차이가 눈에 들어옵니다.** 전국단위 자사고와 일반고 사이가 **약 3,854만 원**입니다.

이 숫자를 겁주려고 실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알고 정하시라고** 실습니다. 1학년에 감당하다가 2학년에 어려워지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아이에게** 갑니다.

출처: 김문수 의원실·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고등학교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2023년 결산 기준)」. 3년 환산은 같은 금액이 3년 이어진다고 본 **저희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다릅니다.

## 49 · 무엇이 빠져 있나

## 학비 밖에 더 있습니다

앞의 표는 **학교에 내는 돈**입니다. 실제로 나가는 돈은 그보다 큼니다.

| 무엇        | 어떤 학교에서 큰가                   |
|-----------|------------------------------|
| 기숙사비      | 전국단위 자사고·영재학교·과학고 — 대개 기숙입니다 |
| 교복·체육복    | 어디나 — 첫해에 몰립니다               |
| 교재·부교재    | 특목고는 <b>전문교과 교재</b> 가 따로 듭니다 |
| 현장학습·수학여행 | 학교마다 크게 다릅니다                 |
| 사교육       | 가장 큰 변수입니다                   |

맨 아랫줄이 실제로 가장 큼니다. 국가데이터처·교육부 조사에서 **고등학생 참여 학생 기준 월 79만 원**입니다. 3년이면 약 2,855만 원입니다.

학비 표와 나란히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일반고 3년 학비(약 214만 원)보다 사교육이 훨씬 큼니다.**

### 그래서 계산 순서가 바뀝니다

「자사고는 비싸다」로 시작하면 더 큰 항목을 놓칩니다. **학비 + 기숙사 + 사교육**을 한 표에 놓고 3년으로 환산해 보셔야 어디에 돈이 실제로 가는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따라 **사교육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 기숙형 학교는 학원에 못 갑니다. **학비가 큰 대신 사교육이 줄어드는** 셈이 되기도 합니다. 둘을 함께 세어야 견줄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교육부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3년 환산은 저희 계산이며 가정마다 크게 다릅니다.

50 · 어떻게 확인하나

학교에 물으면 됩니다

공시로는 전체 그림이 안 나옵니다. 학교알리미에 학부모부담금 항목이 있지만 **항목 구성이 학교마다 다릅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학교 행정실에 직접 묻는 것**입니다.

| # | 물을 말                      | 왜                 |
|---|---------------------------|-------------------|
| 1 | 「1년에 학교에 내는 돈이 모두 얼마입니까?」 | 항목별로 흩어져 있습니다     |
| 2 | 「기숙사비는 따로입니까?」            | 포함인 곳과 아닌 곳이 있습니다 |
| 3 | 「첫해에 더 드는 것이 있습니까?」       | 교복·입학금이 첫해에 몰립니다  |
| 4 | 「감면 제도가 있습니까?」            | 사회통합전형·장학금        |

**4번을 꼭 물으십시오.** 자사고는 정원의 일정 비율을 **사회통합전형**으로 뽑고, 해당되면 **학비 감면이 함께 가는 학교**가 있습니다.

다만 **감면 범위가 학교마다 다르고** 부담금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가 줄어드는지**」를 숫자로 물으십시오.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입니다 — 다만

일반고는 **수업료·교과서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일반고 부담금이 연 71만 원으로 작은 것입니다.

**자사고·특목고 일부는 이 지원을 안 받습니다.** 스스로 학비를 정하는 대신 지원을 안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얼아흙 배까지 벌어**집니다.

출처: 고교 무상교육 관계 법령 및 각 학교 안내. **지원 여부와 감면 제도는 학교마다 다릅니다**. 반드시 해당 학교에 확인하십시오.

## 51 · 그래서 무엇을

## 계산하는 차례와 점검표

종이 한 장에 학교를 가로로, 항목을 세로로 적으시면 됩니다.

| 항목            | 학교 1                     | 학교 2                     |
|---------------|--------------------------|--------------------------|
| 학교에 내는 돈 (1년)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기숙사비 (1년)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첫해에 더 드는 것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예상 사교육 (1년)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3년 합계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고등학교 비용을 볼 때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학교에 내는 돈을 **학교에 직접** 물어보았는가
- ☐ **기숙사비** 가 포함인지 따로인지 확인했는가
- ☐ **첫해에 더 드는 것** 을 물어보았는가
- ☐ **3년치** 로 환산해 보았는가
- ☐ 예상 **사교육비** 를 함께 넣었는가
- ☐ 기숙형이면 **사교육이 줄어드는지** 계산에 넣었는가
- ☐ **감면 제도** 가 있는지 물어보았는가
- ☐ 3년 내내 **감당할 수 있는가**

여덟째가 이 자료의 전부입니다. 1학년에 되고 2학년에 안 되면 전학이라는 큰 결정을 하게 됩니다. 3년으로 계산하고 정하십시오.

##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비가 부담되신다면 그 이유만으로 학교를 접으셔도 됩니다. 부끄러운 판단이 아닙니다. 앞의 표에서 보신 대로 3년에 수천만 원이 갑니다. 그 돈을 아이가 정말 필요할 때 쓰려고 남겨 두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학교 이름이 3년 뒤를 정하지 않습니다.

## 52 · 자주 묻는 것

## 고교 비용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 Q. 비싼 학교가 그만큼 값을 하나요?

「값을 한다」를 무엇으로 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확실히 사는 것이 있습니다** — 시설, 소규모 수업, 기숙 관리, 그리고 **같은 목표를 가진 또래**입니다. 이걸 돈과 바로 이어집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은 진학 결과**입니다. 앞서 다룬 대로 진학 실적에는 **중복 합격과 재수생이 섞여** 있고, **선발해서 뽑은 학생의 결과를 학교의 성과로만 읽으면 과대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시설과 이 또래를 3년 사는 데 이 돈이 아깝지 않은가**」가 답할 수 있는 질문이고, 「**이 돈을 쓰면 대학이 올라가는가**」는 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 Q. 기숙사에 들어가면 사교육비가 줄어드나요?

**대체로 줄어듭니다.** 학원에 갈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학교가 방과후·자습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방학에 몰아서 하거나,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주말에 나와 학원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비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사교육이 줄어드니 싸다**」로 계산하시면 어긋납니다 — 기숙사비를 넣고 다시 세어 보십시오.

정확히 하려면 **그 학교 재학생 학부모께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낫습니다. 「**실제로 한 달에 얼마나 나가느냐**」는 **공시에 안 나오는 숫자**입니다.

### 한 줄로 남기면

고교 비용은 **학비만이 아니라 기숙사·사교육까지 3년으로** 세셔야 합니다. 그 계산은 집집마다 다른 답이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공개된 집계와 통계를 정리한 것입니다. 학부모부담금은 2023년 결산 기준이며 학교·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3년 환산은 저희 계산입니다. 실제 금액은 반드시 해당 학교에 확인하십시오.

## 53 · 먼저 사실부터

# 성적은 따라옵니다

### 「전학 가면 내신이 어떻게 되나요?」

이사·부모 근무지 변경으로 학교를 옮기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성적인데, **먼저 안심하실 것이 있습니다 — 이미 받은 성적은 그대로 따라갑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전학에서 실제로 걸리는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 무엇       | 어떻게 되나                     |
|----------|----------------------------|
| 이미 받은 성적 | 그대로 옮겨집니다 — 학교생활기록부가 따라갑니다 |
| 이수 과목    | 학교마다 다릅니다 — 여기가 실제 문제입니다   |
| 진도       | 시험 범위와 진도가 다릅니다            |
| 세특       | 이어지던 이야기가 끊길 수 있습니다        |
| 지역인재     | 자격이 걸립니다 — 앞서 다뤘습니다        |

**둘째와 다섯째가 크게 걸립니다.** 성적보다 이 둘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출처: 시·도 교육청 학적 관리 지침 및 대학 요강의 지역인재 조항. **학적 처리는 시·도마다 다릅니다.** 해당 교육청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54 · 무엇이 걸리나

이수 과목이 안 맞을 때

고교학점제에서 **가장 크게 걸리는** 자리입니다.

앞 편에서 본 대로 학교마다 **여는 과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옮긴 학교에 **내가 듣던 과목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 들은 과목을 그 학교는 이미 끝냈을** 수도 있습니다.

| 어떤 일            | 어떻게 되나                             |
|-----------------|------------------------------------|
| 듣던 과목이 새 학교에 없음 | 그때까지의 이수는 <b>남습니다.</b> 이어서는 못 듣습니다 |
| 새 학교가 이미 끝낸 과목  | <b>졸업 요건을 어떻게 채울지</b> 상의해야 합니다     |
| 필수 이수가 모자람      | 남은 학기에 <b>몰아 들어야</b> 할 수 있습니다      |
| 진도가 다름          | 시험 범위가 달라 <b>한 학기가 힘듭니다</b>        |

**이건 학교가 알아서 정리해 주지 않습니다.** 전입 학교의 교무 담당 선생님과 반드시 상의하셔야 합니다. 옮기기 전에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 옮긴 뒤에는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세특이 끊기는 것도 실제 손해입니다

앞서 다룬 대로 학종은 **3년에 걸쳐 이어지는** 이야기를 읽습니다. 전학하면 **선생님이 바뀌어 그 이야기를 모릅니다.**

그래서 전학 뒤에는 **새 선생님께 이어 온 것을 알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학생이 스스로 「**이런 걸 해 왔고 이어서 하고 싶다**」 고 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출처: 시·도 교육청 학적·학점 인정 지침. 처리 방식은 학교와 시·도마다 다릅니다.

## 55 · 지역인재가 걸립니다

# 가장 늦게 알게 되는 손해

앞서 다른 **지역인재전형**이 전학과 정면으로 걸립니다.

| 요강이 무어라 하나          | 전학하면            |
|---------------------|-----------------|
| 「그 지역 고교 졸업(예정)자」   | 대체로 됩니다         |
| 「고교 전 교육과정 이수」      | 안 됩니다 — 이게 혼합니다 |
| 「중학교부터」<br>(의약학 일부) | 더 어렵습니다         |

**둘째 줄이 문제입니다.** 고1을 다른 지역에서 다니고 옮기면 「전 교육과정」을 못 채웁니다.

반대로 옮겨 가서 자격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 다만 그것도 전 교육과정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고1 전에 옮겨야 3년을 채웁니다.

### 그러니 시기가 중요합니다

이사가 정해져 있다면 **중3 겨울에 옮기는 것과 고1 여름에 옮기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가능하면 **고등학교 입학 전에** 정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지역인재만 보고 이사를 정하지는 마십시오.** 앞서 본 대로 그 전형이 있는 대학은 10곳이고, 그 지역 대학에 갈 생각이 있을 때 값이 있는 자격입니다.

출처: 각 대학 요강의 지역인재 지원자격. **요건은 대학·계열마다 다릅니다.** 반드시 목표 대학 요강을 확인하십시오.

## 56 · 그래서 무엇을

## 옮기기 전에 할 일

| 차례 | 무엇을                          | 언제    |
|----|------------------------------|-------|
| 1  | 전입 학교의 <b>개설 과목</b> 을 확인합니다  | 옮기기 전 |
| 2  | <b>이수 과목</b> 이 이어지는지 상의합니다   | 옮기기 전 |
| 3  | <b>졸업 요건</b> 을 어떻게 채울지 확인합니다 | 옮기기 전 |
| 4  | <b>지역인재</b>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봅니다  | 옮기기 전 |
| 5  | 새 선생님께 <b>이어 온 것</b> 을 알립니다  | 옮긴 뒤  |

1~4가 다 「옮기기 전」입니다. 옮긴 뒤에는 고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 전학 전에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전입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표** 를 보았는가
- ☐ 지금 듣는 과목이 **그 학교에 있는가**
- ☐ **필수 이수** 를 채울 수 있는가
- ☐ 교무 담당 선생님과 **상의** 했는가
- ☐ **지역인재**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했는가
- ☐ 목표 대학 요강이 「**전 교육과정**」 을 요구하는가
- ☐ **주민등록초본** 으로 이사 시기를 확인했는가
- ☐ 세특에서 **이어 오던 것** 을 정리해 두었는가

넷째를 꼭 하십시오. 교무 담당 선생님이 이 일을 가장 잘 압니다. 전화로 물어셔도 되고, 대부분 자세히 알려 주십니다.

##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신을 이유로 한 전학은 권하지 않습니다.** 앞 편에서 본 대로 등급은 어디서나 비율이고, 옮긴 학교에서도 **상위 10%에 들어야 1등급**입니다. 그런데 **이수 과목·세특·지역인재**는 확실히 흔들립니다. 얻는 것은 불확실하고 잃는 것은 확실한 거래입니다. 이사처럼 다른 이유가 있을 때만 하십시오.

## 57 · 자주 묻는 것

## 전학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전학하면 생활기록부가 새로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그대로 따라갑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 한 명에 하나**이고, 전학하면 이관됩니다.

그러니 **이전 학교의 성적·출결·세특이 다 남습니다.** 「새 학교에서 새로 시작」이 아닙니다.

다만 이어지는 이야기는 끊길 수 있습니다. 기록은 남지만 **새 선생님은 그 맥락을 모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생이 스스로 알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출결도 그대로 따라갑니다.** 고입에서든 대입에서든 **출결은 전 학년을 봅니다.**

**Q. 같은 지역 안에서 옮기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지역인재** 쪽은 대체로 괜찮습니다. 「그 지역에서 다녔는가」를 보는 것이니 같은 시·도 안이면 대개 유지됩니다.

다만 「**전 교육과정을 한 학교에서**」를 요구하는 곳이 있는지는 확인하십시오. 드물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수 과목** 문제는 같은 지역이어도 그대로 남습니다. 학교마다 여는 과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지역이라고 안심하지 마시고 편성표를 건뒀** 보십시오.

학기 중 전학은 **진도와 시험 범위**가 특히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학년이 바뀌는 때**에 맞추시는 편이 낫습니다.

**한 줄로 남기면**

전학에서 걸리는 것은 성적이 아니라 **이수 과목과 지역인재 자격**입니다. 옮기기 전에 **교무 선생님과 상의**하십시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시·도 교육청 학적 지침과 대학 요강을 정리한 것입니다. **학적 처리와 학점 인정은 시·도·학교마다 다릅니다.** 반드시 해당 학교와 교육청에 직접 확인하십시오.

## 58 · 닫으며

# 한 줄로 남기면

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 전체를 한 줄로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학교는 평판이 아니라 공시로 고르는 것입니다. 볼 것은 이미 다 공개돼 있고, 남은 일은 찾아보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에 적힌 것 가운데 상담이 필요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요강을 읽는 일, 달력에 날짜를 찍는 일, 등급을 다시 계산해 보는 일 — 대부분 집에서 하실 수 있고,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해 보신 뒤에도 남은 질문이 있으실 때, 그때 저희를 찾아 주십시오. **그런 질문에는 저희가 값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

인쇄하셔도 되고, 파일로 보내셔도 되고, 학교나 모임에서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남겨 주시면 됩니다.**

같은 시기를 지나는 다른 집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보가 고르게 퍼지는 것이 저희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믿습니다.

## 입시CUBE

이 책의 내용은 2026년 8월 기준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요강과 제도는 해마다 바뀌고 학교·대학마다 다르니, **지원 전에는 반드시 해당 학교·대학의 최신 요강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이 책은 합격 여부나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습니다.